

# 生産藥學의 核心 담 당

國産 原料의 研究開發 促進



會 長 龍 在 益

韓國藥劑學會는 1971年 6月 26日 創立 發足한 以來 아직 日淺하나 우리나라 藥學界에 있어서는 가장 活發하게 活動하고 있으며 實際藥學으로서 製藥會社 病院藥局, 一般 開業藥局의 從事하고 있는 藥師, 大學이나 研究機關에서 藥劑學分野에 關係하고 있는 分들이 中心이 된 學會인 만큼 우리나라 藥學界를 오늘과 같이 發展向上시키고 크게 이바지하는데 實質的인 功獻이 많았으며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理論中心의 純正藥學보다 우리 分野는 應用藥學中에서도 實際生産藥學의 中樞의 核心分野를 擔當하고 있다고 自負하고 싶다.

韓國藥劑學會는 生産醫藥品의 有效性, 安定性 및 品質管理를 原因의으로 達成시킬 수 있는 次元 높은 學會活動을 展開하고 우리가 期待하는 時代性에 副應하고자 다음과 같은 目標와 方向을 設定하고 있다.

첫째, 藥劑學의 生産藥學主體化를 위하여 보다 先導的인 學會로서의 使命을 다한다 둘째, 國內生産 原料性製劑의 研究開發을 促進 셋째, 産學一致의 學會活動을 實效性있게 追求 넷째, 生産藥學을 相互啓導하고 그 向上을 위하여 内外로 有機的인 學會活動을 推進 다섯째, 國內外的 他學會와의 紐帶를 鞏固히 하고 專門學術情報交換을 遂行한다.

여섯째, 韓國藥劑學의 國際的 跳躍을 企圖

그동안 우리 學會는 永東에 있는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建物內에 學會事務室로서 20坪을 永久 佔與받았으며 每年 學術大會時에 優秀論文發表者에게 授與하는 學術賞을 制定하였고 아직

微明하지만 學會運營基金도 若干積立하였다. 이러한 모든 일을 歷代 任員陣들의 많은 努力과 製藥業界의 特志家 몇분들의 도움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感謝드린다.

1975學會年度의 學會長의 重責을 맡게 되니 恒常 責任感을 느낀다. 내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가장 時急하고 重要한 일은 今年度 各事業이 計劃대로 順調롭게 進行되길 바라고 있는것이다 첫째 年4回 發刊되는 學會誌를 欠함없이 適期에 發刊하는 일이다. 每卷 50頁以上이라 하는데 原稿 문제, 印刷 問題 등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에 도움으로 今年末까지 豫定대로 發刊케 되어 있다.

다음 今年에는 3회의 Symposium이 計劃되어 있는데 1次는 지난 5월에 서울 藥工會館에서 “醫藥品再評價와 藥劑學”이란 主題로 Symposium을 開催한바 있으며 2次는 大韓 藥學會 75學會年度學術大會期間中 藥劑學會 主管下에 Symposium을 開催하였으며 3次는 11月 1日 嶺南大學校에서 “開業藥局과 臨床藥劑學”이란 題目으로 開業藥師를 中心으로 Symposium을 開催하였다.

한편 12月에는 總會와 學術大會가 있고 이때까지 今年度學會誌를 모두 發刊完了해야 한다.

매우 바쁘고 어려운 일도 많으나 任員 여러분들과 各部 責任 맡으신 모든 分들의 熱誠的인 奉仕로 모든 일이 順調롭게 進行됨을 나로서는 感謝할 뿐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수 없는 것같이 나도 學會를 떠나서는 살수 없을 것이다.

—도착순—